

# 보따리 무역상 검역 강화된다

## 모든 입국자 휴대농산물 신고내역과 정밀대조 방침

중국산 인삼묘가 반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중국산 인삼묘는 정식 화물통관을 거치지 않고 휴대품(보따리상)으로 반입될 수 있는데다 국내에는 없는 선충등의 병해충까지 들어올 수 있어 철저한 검역이 요구되고 있다.

국립식물검역소에 따르면 최근 중국산 재배용 인삼묘가 휴대품으로 반입돼 재배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중국에서 선박이 입항하는 인천, 부산, 군산항에서의 검역강화에 들어갔다.

중국산 인삼묘의 경우 국내에서 수년간 재배된 후 판매되는데 선충 등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어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검역소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식검은 여행객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고 인삼묘가 반입될 경우 선충 분리 검사, 병원균 배양 검사등 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검역소는 특히 러시아 자루비노와 속초간 국제여객선 운항으로 보따리 무역상에 의한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비 속초항의 휴대농산물에 대한 검역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19일 식물검역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속초항 여객선 전체 탑승객 111명중

관세청 여행객 휴대품 면세통관 범위 (관세청 고시)

품 목	면세통관 범위	비 고
인삼	300 g	전체 해외 취득 가격 10만원 이내
녹용	150 g	
기타 한약재	품목당 3kg	

104명이 인천항을 출입하던 보따리상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은 1인당 총 휴대한도량인 50kg에서 많게는 100kg에 이르는 고추, 참깨, 한약재등 중국산 농산물을 휴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식물검역소는 모든 입국자가 휴대하는 농산물은

전량 개장하여 신고된 내역과 일치여부를 정밀 대조하고 신고되지 않은 식물이나, 신고된 중량과 실제 중량이 다른 경우에는

식물방역법관계 규정에 의거 의법조치키로 했다. 또한 현재 80kg으로 차등 운영되고 있는 인천항의 휴대품 총중량도 오는 10월1일 부터는 부산, 군산, 속초항 등과 같이 50kg으로 통일 운영할 계획이다.

## 수급조절위, 가격조사위원회 구성 백지수입요청안 차기 상정키로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위원장 김상훈) 내에 한약재 유통가격 등의 조사를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됐다. 한약재 가격조사위원회는 김상훈 위원장(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회장)을 비롯 김형규(한약도매협회 사무총장), 최용두(한약협회 한약유통위원장), 조규태(약품공업협동조합 한약전문위원장), 김남훈(대한한방병원협회 사무총장), 남정학 위원(한국생약협회 전무) 등 총6명.

가격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조사위원회에 생산자단체측 대표를 1명 더 총원키로 하는 한편, 소위원회 운영방향 및 가격조사 방법 등에 관해 논의했다.

제33차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백지에 대해서는 농가보유량이 없다고 판단, 소비자측의 백지 수입 요청 건을 차기 수급조절위원회에 안건 상정키

작물시험장은 지난 5월30일 11시에 경원대학교(총장이재순 박사) 총장실에서 약초분야 협동연구 및 한의학 석·박사학위과정 설치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

에 요청, 별도정원으로 입학하는 대학원생은 작물시험장의 연구과제에 참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되며 학위논문에 대한 지도를 받게된다.

## 작물시험장·경원대 약초분야 협동연구 추진

다. 협동과정에 설치되는 전공분야는 작물시험장 특용작물과의 연구분야인 한의학의 본초학 전공으로 양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한의학분야의 인력양성과 약초분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원대학교는 대학원의 본과정 별도정원을 교육부

이날 협정식에서 이대순 경원대총장은 "작물시험장의 업무 소개를 통하여 농촌진흥청과 작물시험장의 중요한 기능을 이해하게 되었다"며 우리 국민의 먹거리 연구개발에 한층더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무남 작물시험장장은 학위과정의 공동연구 협력은 물론 학부생들의 작물시험장 견학등 약초분야 발전을 위한 다각도의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로 했다.

제34차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는 오는 6월중 개최될 예정이다. 한약협회와 약품공업협동조합 등에서 수입요청한 천궁, 택사, 향부자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타당성 여부가 검토될 전망이다.

해 인삼의 국제식품규격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농림부는 최근 전문가 25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유엔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규격 제정을 위한 심의회를 가진데 이어 6월중으로 규격안을 마련, 국제 식품규격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 인삼 6월중 국제식품규격안 마련

김치와 간장에 이어 인삼도 국제식품규격화가 추진된다.

농림부는 외국시장에서 중저가 외국산 인삼이 고려인삼으로 둔갑돼 팔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출상대국의 자의적인 규격적용에 의한 무역마찰을 해소하기 위

## 금산 인삼약초의날 용인 에버랜드에서

충남도와 금산군은 도내 최대 명물인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6월1일부터 30일간 용인 에버랜드에서 '제2회 밀레니엄 금산 인삼약초 요리 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에서는 삼성에버랜드 직영 음식코너인 오리엔탈, 베네치아, 암스텔담, 한가람, 알파인등 5개 식당에서 개발한 인삼닭찜 등 한식 16종과 인삼초밥 등 일식 7종, 중식 5종 등 모두 40여종의 진미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자연산 송이의 고장인 강원

## 양양에 버섯전시관 건립 추진

도 양양군에 버섯전시관과 버섯연구소가 건립될 예정이다. 양양군은 18일 식품과 약재로 높은 가치를 지닌 양양 자연산 송이버섯을 체계적으로 연구, 생산및 가공·판매하기 위해 전시관과 연구소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버섯전시관은 양양 인근 산지에 2만평 규모의 생태체험장을 마련, 자연생태 학습장의 기능을 갖춘 관광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 활짝 핀 작약꽃 '손짓' 각급 학교견학, 자연학습장으로 인기

초여름을 맞아 만개한 작약꽃밭이 일반시민이나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장이 되고 있다. 경북농진원 의성약초시험장(장장 박소득)은 작약꽃이 활짝 핀 5월20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일반인들에게 특별히 시험장을 개방하고 있다.

박소득 시험장장은 "이번 개방기간을 통해 시험장의 연구결과 홍보와 함께 첨단 실험장비, 연구시설을 소개하고 동시에 각종 약초류가 재배되고 있는 시험포장도 개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초시험장 유전자원포에는 국내외에서 수집된 작약

300여계통, 목단47계통, 홍화80계통 외에도 우리나라 산이나 들에서 찾아볼수 있는 야생약초 160여종을 한 자리에 모아 식물명, 학명, 효능을 적어 알리고 있다.

연중 개방돼 있는 시험장이지만 특히 이번 행사기간에 시험장을 방문하는 단체나 개인에게는 돌아가서 화단에 옮겨심을수 있도록 작약 분화를 증정하고 있다. 그때문인지 시험장엔 의성뿐 아니라 대구 안동 등 인근지역으로 부터 많은 내방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의성약초시험장 김정혜 연구사는 "올해는 예년보다

작약꽃이 4일정도 늦게 개화해 초기의 방문한 분들은 만개하는 모습을 보지못해 아쉬웠지만 지난주말인 5월말 부터는 작약꽃이 만발해 절정을 이루고 있다."며 "이번 행사기간 중 초등학교 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급학교의 견학은 물론 자녀들의 자연학습을 위한 가족단위의 방문과 사진동호회등 꽃에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장을 다녀갔다."고 전했다.

한편 의성군에서는 5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의성군



내의 초등학교 12개교를 대상으로 의성약초시험장을 단체방문토록 하는 군정교실을 열고있다. 군직원들이 일일교사로 임명돼 운영중인 군정교실을 통해 초등학교 학생들은 유리온실의 기능과 역할, 각종 야생산약초의 모습과 효능등을 익히며 식물과 자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